

## 외국문학연구의 한가지 모범

김중운 저, 『현대 미국 소설론: 두 세계 사이에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년, 392쪽

金 吉 中  
(서울大學敎 英語敎育科)

이태 진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 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영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때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욱 교수는 본론에 앞서 해방이래의 우리나라 영어영문학 연구의 성과와 차후의 전망을 가늠하면서 네 단계의 흥미로운 시대구분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각각 15년의 소(小) 주기로 된, 개척기(1945~1960), 파종기(1960~1975), 개화기(1975~1990), 결실기(1990~2005)로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었으나, 씨를 뿌려서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비유가 필자에게는 신선하였다. 15년으로 된 각 단계는 대략 학문의 한 세대에 상응하고 전체 주기는 인생의 갑년회귀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영미문학분야의 농사일정이 이와 같으니 각자는 성실한 학문의 농사꾼이 되자는 자기암시도 숨어있었던 것이다.

지난 7월에 간행된 김중운 교수의 『현대 미국소설론』을 읽고나서 필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외국문학 농사론을 환기하게 되었다. 학문상 해방후 제일 세대에 속하는 저자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결실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넉넉히 값하는 역작을 펴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김교수는 “개척기”에 대학을 다니고 “파종기”에 강단에 선 셈인데, 그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남달리 연구정진한 토대위에 우연치 않게도 “결실기”에 접어들어 거둔 첫 저술이 영미문학 분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외국문학 연구의 한가지 귀중한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비록 약간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이 책을 우리나라의 영미문학 반백년 연구노력의 상징적인 결실의 하나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해방후 영미문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비중이 큰 문화적 품목으로 성장하여 왔다. 거의 모든 대학의 문과계열에서 사회의 영어붐을 배경으로 영문학과가 아직껏 누리고 있는 특권적 위상이 그 단적인 증좌이다. 그러나 이 사회적 혜택이 외국문학 연구에 내재하는 온갖 어려움(자기회의를 포함하는)과 얽히어 오히려 교육과 연구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오래도록 천연시킨 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몇갈래의 해

묵은 문제적 관행, 혹은 함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작가 중심의 편협한 전공주의이다. 작가와 작품이 물론 문학의 기본이지만, 개별 작가를 위요하는 보다 큰 전망의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그 문학을 낳은 문화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둘째는 거꾸로 작품을, 혹은 현실 내용을 소홀히하는 추상적 이론주의이다. 무릇 살아있는 이론은 현실세계에 뿌리를 두면서 동시에 이를 조망하는 까다로운 담론형식이다. 이즘 하나에 그만한 세계전망—이것이 외국문학도를 유혹하지만, 이 대리전망 내지 유사전망은 당연히 함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사회내에서 유효한 척도와 의도를 갖대로 써서 자의적으로 접근하는 주관적 효용주의가 있다. 이것이 한국문학에 현실적으로 일조하는 길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자유자재한 경지를 위해서라도 영미문학 자체에 대한 본격적이며 전망이 있는 연구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준용 교수의 『현대 미국소설론』은 외국문학도가 조급함이나 편의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함정에서 의연히 벗어나 있다. 성실한 작가론의 기반위에 한 시대의 문학정신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인데, 이 시대에 대한 전망이야말로 외국문학연구의 궁극적인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책의 범위인 전후에서 작금에 이르는 미국은 한국사회에 그토록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로 우회된 소개 정도를 차치하면 국내에서 이 시기의 미국문학에 대한 이렇다할 본격적인 정리가 눈에 띄이게 빠져 있던 터였다.

이 책은 확연히 구분되는 두 부분으로 엮어졌는데, 제 1부 「유태계 르네상스」에 모두 9장, 제 2부 「포스트모던 작가군」에 7장이 할애되어 있다. 그 중 유태계 문학은 개념상 소수민족의 문학에 속하겠으나, 전후 50년대와 60년대에 벨로우, 멜러머드 등이 눈부시게 이룩한 성과가 바로 당대의 미국소설을 그 중심에서 대표한 것이라는 시각이 저자의 암묵적인 입장이다. 필립 로스의 반유태적 문학으로 상징적 종결을 맞이하는 이 유태계 르네상스의 문학사적 위상은 그 이전의 모더니즘과 그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외, 절망, 허무, 부정의 묵시론적 위기의 문학관을 거부하고 인간긍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도덕적 비전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60년대 이후 새로운 기법상의 실험과 부조리적 세계관을 앞세우고 등장하여 점차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뭉뚱그려 불리우게 되는 바야스, 핀천, 보네것, 마아셀미 등의 문학은 새로운 시대적 국면이 된다. 이를테면 저자는 전후 미국문학의 전개과정을 두 국면으로 파악하고 각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또 다소 독립적으로, 그 범주, 배경, 작가, 유형, 전망 등을 궁구하는 것이다. 매슈 아놀드를 원용한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책의 부제는 이렇게하여 붙여졌다.

그중 특히 전반부 「유태계 르네상스」는 이 분야에 관한 한 무비의 압권으로 보인다. 이차대전 이후의 미국문학, 그중에서도 유태계 문학에 관한 김교수의 남다른 관심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6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출판된 『국내 미국학 논저 색인』의 「문학」편

에 수록된 그의 논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30편에 육박하는데 그 대부분이 전후 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저자는 미국의 유대계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사 내지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주요 작가론에 연계하고 있다. 저술의 전체 구도 안에서는 전후의 유대계 문예부흥이 관심 주제이나,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표현대로 “모든 문학적 및 문학외적인 접근법”을 동원하여 미국내 한 소수민족의 모범적인 문학사를, 그것도 철저하게 쓰고 있다. 문화, 전통, 신화, 의식, “상황”을 망라하는 모든 내적 외적 요인들을 작품과 역사 속에서 섭렵하여 유대계 문학의 “유대성”의 해명에 동원하는 철저함이다.

미국내에서 이룩한 유대계 문학의 신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두루 퍼져있는 유대인과 유대성에 관한 온갖 신화를 생각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접근은 유익하고 정당한 것이다. 신화는 무엇보다도 해명을 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아메리카 이주의 역사는 신대륙 발견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전반의 독일계의 이민을 거쳐 19세기 후반에 동구계의 대규모 이민 물결이 뉴욕으로 밀려든 후에야 유대인은 미국내에서 독자적인 문화적 터전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유대계 문학의 조종이 되는 에이브러햄 캐헌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의 문학사적 전개과정을 저자는 마커스 핸슨의 이민 사회심리학 등을 원용하여 분석한다. 곧, 이민 제일 세대의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외설, 제이 세대의 자기혐오, 제삼 세대의 새로운 자기긍정이 유대계 문학의 삼대에 해당하는 1910년대의 캐헌과 메리 앤틴, 30년대의 헨리 로스와 나다니엘 웨스트, 전후의 솔 벨로우나 버나드 맬러머드의 문학적 자아의식 내지 세계관과 상통한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과제는 “유대성”의 탐구이다. 이것은 소상히 기술된 민족문화사 부분의 축점이고, 또 캐헌에서 벨로우에 이르는 작가론의 기준이다. 조이스, 카프카 등의 유대인 주인공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현대적 소외의 전형으로서의 유대성이 강조되나, 이 소외가 허무와 절대절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어떤 니힐리즘도 유대적 세계관에 배치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유대계 르네상스의 핵심에 벨로우의 휴머니즘이 위치하는 까닭은 이와같다.

저자 자신의 휴머니스트로서의 문학관이 절제속에 은근히 반영되어 있는 이 “인간긍정”(빈번히 나타나는 표현임)의 국면이 제 2부 「포스트모던 작가군」에서 반전된다. 시기로 보아 대략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문학의 주류를 일군의 신진 작가들을 통하여 규명하고 있는데, 바야스, 핀천, 보네겟, 브라우티건, 손탁, 코진스키, 바셀미의 일곱 작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전후 십여년 기간의 미국사회는 “정적의 50년대”라는 꼬리표가 암시하듯 보수적, 도덕적, 낙관적인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서 반전운동, 흑인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 성, 계급, 인종 등에 대한 기성가치의 지평을 흔미케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이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을 배태하게 된다. 바야스가 이 새로운 감수성의 한 가닥을 대변하는 「탈진문학론」을 창밖에서 시위대

의 함성과 최루탄의 폭음을 들으면서 썼다는 일화는 상징적이요 시사적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부조리 세계관과 반사실주의로 일목요연하게 정의한다. 클린코워츠가 “제 2의 모더니즘 기류”라고 조이스 등의 본격 모더니즘과 구별하여 명명한 바 있는 베케트, 주네 등의 부조리극과 보르헤스, 나보코프 등의 자기반영적 소설쓰기를 선행하는 모범으로 거론하면서 저자는 그 내용을 다양성, 인공성, 패러디, 블랙 유머의 네가지 요소로 나눈다. 진실, 질서, 목적이 자취를 감추고 엔트로피적 혼돈이 팽배한 우주, 사실과 허구의 차별이 무위화하여 현실의 반영이 아닌 자기반영만이 가능한 소위 “소설의 죽음” 후의 목적자족적인 소설, 기왕의 문학적 내용과 형식이 탕진된 후의 유일한 글쓰기 형식인 패로디와 콜라주, 그로테스크한 현실에 상응하는 언어형식으로서의 블랙 유머, 세계의 즉물성 앞에서 언어가 표현의 의지를 거두고 침묵을 향해 퇴조하는 미니말리즘의 파편 미학—이것이 소위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의 세계이다. 저자는 이 세계를 충실히 객관적으로 분석, 기술하면서도 이들의 문학적 과잉속에 완전히 매몰되지 못한 현실비판적 요소와 부정의 세계관 속에서 가끔씩 눈에 띄이는 “한정된 긍정”의 여지를 지적하기를 잊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미국내의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점이다. 존 가드너의 『도덕적 소설론』(1978)과 제럴드 그래프의 『자기 부정의 문학』(1979) 따위가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의 책을 “조산아”로 표현하면서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현대 미국소설론』의 부제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두 세계 사이에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두 주제에 언급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 자신의 문학적 갈등과 비판을 함축하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이점에서 저자의 견양이 다소 지나쳤다는 느낌도 있다. 책속의 저자 자신의 목소리가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복잡다기한 현대 미국문학의 흐름을 포용하는 시대정신으로서 책의 두 주제 혹은 국면이 지니는 현실적 대표성의 정도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제목은 “현대”로 되어 있는데, 동시대에 왕성하게 부상한 흑인문학과 여성주의 문학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저술의 의도로 보아 불가피하였을 것이지만, 만일 소수민족문학이 기준인 1부와 시대사조가 기준인 2부를 나누어 두권의 별책으로 만든다면 쉽사리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들이란 부질없는 사족일지도 모른다. 목하 진행중인 당대의 외국문학을 정리하는 일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흠집 여럿을 더 찾아내어 이에 보태더라도 이 드문 노작의 풍부하고 성실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